

## P2-07

### 서울 소재 종합사회복지회관 영양사 유무에 따른 이용 노인의 건강 및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최운정<sup>1,2\*</sup>, 박유신<sup>2,3</sup>, 이나영<sup>1</sup>, 장유정<sup>1</sup>

<sup>1</sup>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sup>2</sup>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sup>3</sup>광명재활의학과의원 영양과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무료 제공과 반찬 제공 서비스 등의 급식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영양사가 상주하면서 노인들의 영양균형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몇몇 복지관에는 상주하는 영양사 없이 사회 복지사들이 직접 식단을 작성하고 노인들에게 식사와 반찬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관의 영양사 유무에 따른 건강상태와 영양상태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대상자들은 서울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 361명으로 일반적인 특성, 건강과 관련된 조사 (키, 체중, 질병의 유무, 건강상태, 신체 기능 상태(ADL, IADL))와 영양상태 조사 (식습관, 맛과 식품에 대한 기호도, 식품 안정성, 영양위험평가(NSI checkhst), 24시간 식사섭취)를 각각 실시하였다. 각 요인에서 대한 비교는  $\chi^2$ -test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71.8(6.5)세로, 대상자의 26.6%가 영양사가 없는 복지회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영양사가 없는 복지관에서 식사하는 노인의 91.7%가 여성이었다. 영양사가 있는 복지관에서 식사하는 노인의 40.7%, 영양사가 없는 복지회관에서 식사하는 노인의 75%가 자신을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또한 식품 안정성 조사에서는 영양사가 있는 복지회관에서 식사하는 노인의 78.9%가 음식을 충분히 먹는다고 대답하였으나, 영양사가 없는 복지회관에서 식사하는 노인의 40%는 가끔 또는 자주 원하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대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p < 0.05$ ). 영양위험평가에서는 '과일과 야채,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 $p < 0.05$ )', '경제적인 문제로 필요한 음식을 구입하기 어렵다( $p < 0.001$ )', '주로 혼자서 식사한다( $p < 0.001$ )'의 항목에서 영양사가 없는 복지회관에서 식사하는 노인이 유의하게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영양사가 있는 복지회관에서 식사하는 노인의 33.5%가 영양상태 고위험군, 30.0%가 영양상태 양호군에 해당한 반면, 영양사가 없는 복지회관에서 식사하는 노인들은 70.8%가 고위험군, 10.4%가 양호군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영양소 섭취량(%RDA)에서도 영양사가 있는 복지회관에서 식사하는 노인들이 더 높은 섭취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복지회관과 같은 지역사회시설을 통해 하루 중 필요에너지의 1/3 이상을 섭취하는 노인들에게 보다 양호한 영양상태 및 건강상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양과 건강을 진단하는 전문 영양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 P2-08

### The Effect of the Usage of Computer on the Change of Dietary Attitudes and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eoul

Young Rim Kang\* and Ae Jung Kim<sup>1</sup>.

Dept. of Diatetician of Kyungbok Elementary School, <sup>1</sup>Dept. of Food and Nutrition of Hyejeon Colleg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dietary attitudes and behaviors in relation to the use of compute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eoul. The total of 451 elementary school children, consisting of 235 females and 216 male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for the study. The results for domestic characteristics, attitudes and behaviors, the level of the use of computers, and health-related symptoms of the subjects were achieved through the questionnaires as follows: The average height, weight, BMI and obesity-index of the participants were 149.0 cm, 42.4 kg, 19.0, -8.6 respectively. 42.8% of them answered their bed times were between 11~12 pm, and 82.4% answered that they have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 most desired activity at their leisure was computer works (female: 44.3%, male: 62.5%). 38.4% answered they use computers 1-2 hour for a day and the most general usage of computers was a computer game (66.1%). The changes in dietary habits of the subjects were such as eating faster(30.2%), having lots of snacks (28.8%), eating anything at hand (26.4%), skipping breakfast due to over-sleeping(18.4%). The changes in life patterns were those in the times for watching T.V.(35.3%), reading (35.0%), exercising (31.9%), sleeping (27.5%), relaxing (27.5%), other hobbies(26.4%).

In conclusion, many children are being affected by factors of the changing socioeconomic environment, especially by the need for the use of computers. The rates of eating alone and skipping breakfast are getting higher in the dietary pattern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we found that the generation of the computer, one of the important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is hugely affecting the dietary pattern. So, we must establish the direction and nutrition education method for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desirable dietary behaviors.